

# 세계선교의 상급, 영원한 상급 - 후원교회. 후원개인. 모두 다 함께

2023/09/30 콜롬비아 박재현 정은실M

히브리서 10:35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11:26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파송단체의 **세계선교대회**가 미국LA G교회에서 9/18-21 있었습니다. 교회의 EM영어선교부 130명 청년들이 무려 50만달러를 헌금하고 자원봉사로 주관하고 전 교인 중 500명의 핵심성도들이 주방/식당/마당잔치/준비/운전 등으로, 60개국 730여명 선교사/현지 목회자/총회원들을 헌신과 희생으로 섬겼습니다.

모든 시간이 정말정말 감동과 감사였으나 지나고 보니 가장 가슴에 남는 것은 **은퇴 선교사** 75-90세 되신 분들의 합창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으신 1호 선교사이신 김M, 7년전 강의하셨던 두분 M은 파킨슨으로 손을 계속 떨시며 찬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합성과 박수로 그분들이 나가실 때까지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편 허전했습니다. 무언가 더 드려야 하는데... 단 30초 박수 외에는 더 할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허전합니다... 누군가/교회가 이분들을 위한 보상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확신하는게 있습니다. 야훼 주님은 **‘영원히’** 은퇴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영원히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수십년 함께 사역한 **‘후원교회와 후원자들도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7이란 숫자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두기도 하는데요. 지난 7년간 항상 35도의 더위와 가난으로 찌든 이곳... 한국인은 커녕 백인을 포함한 외국인이라고는 저 혼자인 이곳에서 고군분투하며 꼭 찬 7년의 사역을 채울 즈음 주님은 판데믹으로 하지 못한 4년마다 가지는 세계선교대회를 7년만에 주시네요. 고마우신 하나님... 따스함 가득했던 교회들과 한분 한분 귀하신 교우님들... 감사합니다. 큰 기쁨과 감동 안고 사역지로 돌아 갑니다.

만 7년을 지나며 지난 시간을 교회 앞에 보고할 책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드리며, 제가 교회에서 선교지를 소개할 때 3가지 질문의 답변 형식으로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전제하기를 선교사는 **‘선교가 필요하나 선교사가 없는 곳을 찾아가’** 살아야 하는데요...

**1)왜 하필 콜롬비아인가요?** 세계에서 가장 적은 수(10unit?)의 한국M가 활동하는 국가중 하나...

왜냐하면, 과거 20년간 마약카르텔/무장게릴라 전쟁으로 수많은 목회자/선교사들 암살된 흑역사...

**2)왜 리오아차인가요?** 지난 40년 간 단 한명의 외국인 선교사가 없었던 곳. 현재도 본인이 유일한 선교사이며 동양인으로서의 최초의 거주자... 그런데, 선교지 리오아차는 콜롬비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2015년 통계. 연간 800명 영양부족 사망)이며 중남미 최대의 이슬람 포교센터...

3) 왜 차세대(어린이) 사역을 하나요? 주님이 3명의 어린이를 만나게 하시며 이 지역으로 이끄셨고 교실 건축헌금을 갑자기 받게 되어 교실을 지으니 빈민촌/난민촌의 엄청난 아이들이 모여들어 시작되었고, 어른과 달리 어린이는 기독교육을 통해 가난의 세습을 끊고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 제가 학부에서 기독교육학과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고 보육원과 대안학교 근무경험이 있었죠. 또, 성격이 일반적인 중년의 한국인과 달리 비교적 어린이들과 잘 어울린답니다.



세계선교대회 입장. 혼자이다보니 교인들 동행



건축 후 국제NGO단체들 찾아와 지역주민 섬김



어린이 수업은 연령대로...





건축가이신 장로님의 질문, '이 액수로 교실 짓는게 어떻게 가능하나요?' 건축회사에 의뢰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며 직접 감독하는 것은 비효율/불가능해서, 우여곡절과 고난 그리고 기도 중에 좋은 작업팀장(십장)을 만나서 공사기간으로 계약해 건축합니다. **기숙사/보육원 통합형 교실과 탁아소 건축**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미래에 더 크게 쓰임 받을 것 같아서 모든 기초공사는 4층 옥상까지 활용되도록 깊고 튼튼히 했습니다. 기초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증축하려고 기초공사 다시하게 되면 돈이 두배 더 지출됩니다.

10월 중 완성해 **개관식**을 하고 Y교회의 사랑이 담긴 학용품들을 선물하고 가능하다면 추수감사절 풍성한 고기국 잔치를 하고자 합니다. 벌써 아이들이 기뻐할 모습이 그려져 가슴이 설레네요. 어떻게 하면 더 극적으로 선물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 중입니다. 수 천명의 빈민/난민 중 학업과 복음에 관심있는 100여명의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성인이 되어 가난한 어린시절을 추억하며 멀리서 온 한국인들의 사랑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기숙사/보육원 통합시설 '기쁨의 집'건축현장





탁아소 건축현장

어린이 수업은 6개 반으로 확대해 10명의 스텝들과 100명의 어린이들을 섬깁니다. 100명의 수업과 간식까지 매번 약 40달러 지출되니 한국과 미국 비교하면 정말 정말 적은 금액이죠. 단돈 40달러로 100명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한달이면 뭇돈이 되기도 합니다만... 아이들은 너무 기쁘하고 기다리며 수업에 참여합니다. 난민촌에 빈민촌에 연말 성탄절에나 찾아오는 특별한 행사 외에는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매주 벌어지니 이들에게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영원한 기쁨. 영락'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기독교교육을 통해 가난의 세습을 끊도록 돕는 것이 '꿈들의 집'의 사역/교육 목표입니다. 구호사역은 기독교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곧 성인 문맹자 대상의 수업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은퇴 선교사님들의 찬양을 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늙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번 세계선교대회를 참석하며 두 가지 깨달는 것은, 정말 이 선교단체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한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는 것과 회개/결심이었습니다. 욕심부리지 않고 선교지가 원할 때까지 가난한 이들의 영혼과 인생을 돕는 일을 마쳐야겠습니다. 저의 하늘과 이 땅에서의 상급은 바로 여러분. 후원교회와 후원개인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넉넉해서 헌금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을 달도록 하는 것이겠죠. 주님은 더 잘 아시죠. 영원한 상급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상급도 바라봅니다. 축복 드립니다.

### < 기도 제목 >

- 1.길고 깊은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잘 순종하도록
- 2.종교비자에 필요한 어느 후원교회의 재정보증 서류를 제출해 2년 비자 받도록
- 3.기숙사, 보육원 통합시설 영락의 집과 탁아소 건축이 잘 진행/완공 되도록
- 4.현지인 좋은 교사를 만나 수업과정이 계속 발전하도록
- 5.10월 말 선교팀 방문 기간에 안전하며 은혜가 가득하도록
- 6.운전과 출근에서 안전, 건강을 위하여
- 7.후원교회들의 평안과 후원자들의 건강/재정/자녀들 위해